

News Letter

사무실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3층 / Tel : 051-462-7473 / Fax : 051-466-4709

이용흠 이사장 등 임원 7명 일본서 3박4일 워크숍 가라쓰 일한터널 조사사갱 공사현장 등 견학

평화통일재단 자문위원 등 12명과 동행 조선통신사 유적지, 나고야城도 탐방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이용흠 이사장 등 임원 7명이 지난 8월 9일부터 12일 까지 3박4일간 일본 규슈 후쿠오카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이들은 사가현 가라쓰 소재 한일해저터널 조사사갱을 견학하고 조선통신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아이노시마(相島)와 사가현 나고야성(名護屋城) 박물관 등 한일관계 유적지를 견학했다.

이번 워크숍은 평화통일재단(이사장 박정환)의 자문위원 및 임원 등 12명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양측은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출발, 후쿠오카공항에서 만나 전 일정을 함께 했다.

일행은 도착 첫날 공항에서 바로 후쿠오카 근교의 신구초 항(港)으로 이동, 배편으로 아이노시마에 가서 조선통신사 일행을 맞이했던 당시의 방파제와 객사 터 등 유적을 둘러봤다.

이틀째인 10일에는 규슈 국립박물관을 견학했고 11일에는 전세버스편으로 사가현립 나고야성 박물관을 찾아 상설 전시 중인 한일교류역사전시회를 관람했다. 나고야성은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반도침략을 위해 만들었던 성으로 현재 성터만 남아있으며 나고야성 박물관은 이 성터 한편에 자리잡고 있다.

이어 일행은 가라쓰의 일한해저터널 조사사갱 공사현장을 방문, 후지하시 소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현재 5백여미터 까지 굴착돼있는 터널내부를 둘러봤다.

이날 저녁에는 숙소인 뉴 오타니호텔 3층 회의실에서 일한터널연구회 측 하마 박사를 초청, '세이



가라쓰 일한터널 조사사갱 현장을 방문한 일행이 후지하시 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으로부터 터널루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칸터널 건설 경험'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이번 일본 워크숍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 이용흠 이사장 △ 박치권 사무총장 △ 박성수 이사(부산대 건축과 교수) △ 정현영 이사(부산대 도시학과 교수) △ 류종우 이사(부경대 건축과 교수) △ 정창훈 이사(일신설계 상무) △ 김차웅 감사 <이상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임원>

△ 김용호(주 대능 부회장) △ 곽결호(대한토목학회 회장, 전 환경부 장관) △ 배경율(상명대 기획부총장) △ 신동규(전 수출입은행 행장) △ 여영수(IIFWP 실장, 전 선문대 이사) △ 정태익(경남대 교수, 전 주 러시아대사) △ 추준석(전 부산항만공사 사장) △ 허문도(전 통일부 장관) △ 황호균(더페이스샵코리아 부회장) △ 티모시 엘더(평화통일재단 사무총장) △ 권혁서(평화통일재단 상임고문) △ 김동욱(평화통일재단 국장) <이상 평화통일재단 자문위원 및 임원/가나다 순> *

허문도 전 통일부 장관 특강

“한일터널은 양국간 소득평준화 수단” “국가전략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강조

허문도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 8월 11일 일본 워크샵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한일관계 2천년 - 과거로 미래를 전망한다>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한국은 미래지향적 국가전략으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주도하는 대담한 베팅을 해야 한다. 한일해저터널 건설은 한일간의 소득평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 장관은 “지금 세계는 국가간 끼리 끼리 시장을 묶어 거대시장을 만드는 FTA가 생겨나고 있다. EU처럼 ‘동북아공동체’라는 것도 결국 그 핵심국가는 한중일 3개국이다. 이 3개국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내는 데는 역사적 발전단계적 여건상 동북아공동체의 전 단계로서 우선 한일 두 나라가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룩하고 그 후에 중국이 함께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럴려면 한일 양국이 우선 FTA를 체결해야 하는데 한일해저터널 건설은 동아시아공동체를 향해 한일 FTA체제를 좀 더 현실화, 고도화하는데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전장관의 특강은 가라쓰 공사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약 4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사진은 허 전 장관이 특강하는 모습.

그는 “만약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주도해 나간다면 한국은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피해의식이랄까 일종의 ‘역사적 한(恨)’을 극복해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무역역조는 극복되고 중국에는 한일해저터널로 인해 한일간의 소득평준화에 도달하고 말것이다”고 주장했다. 허 전 장관은 “한일해저터널을 건설하면 일본이 중추역이 돼 일본만 득을 본다든지 하는 좁은 피해의식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현 단계에서의 한일 간 경제격차를 놓고 두려워 할 것도 아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日人단체 ‘제비회’ 회원들이 안내 “현대판 조선통신사가 왔다” 반겨

이번 일본 워크샵에 참가한 우리 일행이 일본 도착 첫날인 지난 8월 9일 오후 옛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아이노시마(相島)를 방문했을 때 후쿠오카에서 활동 중인 일본민간단체 ‘제비회’의 회장 도미나가 세이지씨 등 회원 5명이 마중 나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제비회’는 아이노시마가 고향인 일본인들이 중심이 돼 만든 한일친선교류를 위한 민간단체. 이들은 지난 날 조선통신사가 일본 내해로 들어가 기 전 자신들의 고향인 아이노시마에 들려 체류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시의 한일 간 교류를 거울삼아 민간차원에서 한일친선교류를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도미나가 회장은 우리 일행이 아이노시마를 방문한 것을 놓고 “현대판 조선통신사가 온 것 같다”며 우리 일행을 ‘헤이세이(平成) 통신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도미나가 회장 등은 우리 일행이 아이노시마에 도착하자 먼저 옛 조선통신사를 태운 배들이 정박했던 방파제로 데리고 가 당시 방파제 축조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자세하게 소개했고 이어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객사 터, 우물 등지로 안내하며 친절하게 설명했다.



도미나가 회장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

도미나가 회장 등은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가 한일해저터널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에 박수를 치며 좋아하기도 했다. *

“기술적 문제 없다. 착공 7년 내 완공” 후지하시 소장 밝혀

일본 규슈 사가현 가라쓰 소재 일한해저터널 조사사개 공사현장 책임자인 후지하시 소장은 지난 8월 11일 현장을 찾은 이번 워크샵 참가자들에게 “(일한해저터널 건설공사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한일 간 정치적 합의가 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한국과 일본이 합의만 하면 터널은 7년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화 보

한일터널연구회 / 평화통일재단 합동 일본 워크샵(8월 9일 ~ 12일)

조선통신사를 태운 배들이 정박했던 후쿠오카현의 아이노시마(相島)의 방파제에서 기념촬영. 이 섬에는 조선통신사 일행이 묵었던 객사 터가 남아있다.



일한터널연구회의 하마 박사가 '세이칸터널 건설 경험'이란 제목의 특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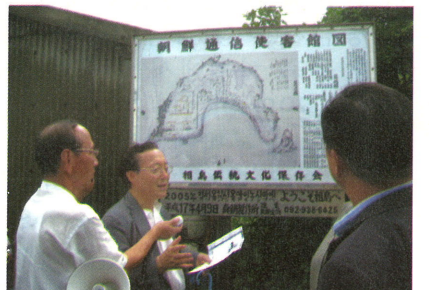
이용흠이사장이 워크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가현립 나고야성박물관 관람 후 기념촬영. 이 박물관은 한일교류사를 비교적 객관적 시각에서 상설전시하고 있다.



가라쓰 일한터널 조사사경 입구.



아이노시마에서 허 전 장관이 조선사절단 유적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국제심포지엄, 부발연과 공동주최키로 7월 14일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정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는 지난 7월 14일 사단법인 사무실 (부산 동구 초량동 일신빌딩) 회의실에서 2008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난 5월 14일 서면 롯데호텔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은 서의택 이용흙 공동대표, 박치권 사무총장, 고관서 부이사장, 류종우, 정현영, 전국삼, 이동욱, 김차웅(감사) 등 9명이며 이상훈이사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참석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는 회원확보 대책으로 정회원과 기관회원, 특별회원을 이사 등의 추천과 권유 등으로 영입하기로 했고 년회비는 일반회원(정회원) 2만원, 이사 10만원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약 정액(1구좌 1백만원 단위)으로하기로 의결했다. 또 '한일터널 포럼'은 연간 개최횟수를 정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필요시 개최하되 담당이사로 추대된 정현영이사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문 및 자문위원 선정 및 추대는 공동대표에게 전권을 주기로 했으며 전문위원회는 이사회 산하에 정책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 또 당초 오는 8월에 개최하기로 했던 국제세미나는 오는 가을로 연기하되 '한일해저터널 국제 심포지엄'이란 타이틀로 부발연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뉴스레터 발행부수를 현 1천부에서 더 늘려 언론사 등에도 배포하기로 했다. *

부산시, 한일해저터널 연구에 본격 돌입 허남식시장, 부발연에 T/F팀 구성 지시 서의택 이용흙 공동대표, “크게 환영”

부산시가 한일해저터널건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부산발전연구원(부발연)은 '부산시의 지시에 따라 한일해저터널 건설 문제를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동남권(부산·경남) 지역을 잇는 동북아복합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연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6월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발연은 최치국 도시창조본부 선임연구위원을 단장으로 김형균 정책협력처장, 금성근 지식경제본부 선임연구위원 등 교통, 물류, 사회·문화, 경제 분야 전문가 8명으로 '한일해저터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부발연 TF팀은 오는 12월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담은 '국제물류 교통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남식 부산시장은 “국경의 개념이 사라지는 초광역적 국제상황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저터널 효과 등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일터널연구회 서의택 이용흙 공동대표는 “그동안 한일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던 부산시가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민간차원에서만 한일해저터널건설 문제를 연구하고 홍보해왔으나 앞으로 민과 관이 함께 활동하게 되면 한일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반대해온 시중의 여론도 점차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역의 유력일간지인 부산일보는 6월 27일자 1면 톱기사로 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

찬반론 뜨거운 한일터널 타당성연구 네티즌들의 반대의견 많아

최근 부산시가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 연구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언론들이 크게 다루자 인터넷에서 댓글을 통해 찬반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큰 반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반대의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많은 실정. 한일해저터널건설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부산시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에 올린 항의글과 부정적인 댓글은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또 부산시청 담당부처와 부산시의 타당성연구 사실을 1면 톱기사로 보도한 부산일보에도 항의전화가 많이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등을 통해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네티즌들은 대개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부산항은 무용지물이 될 지도 모른다”, “수많은 이점들이 일본에 넘어간다”, “매국노의 행렬에 들어가려고 한다”, “여론조사가 없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한다” 등의 주장을 폈다. *

社団法人 韓日トンネル研究会
News Letter 第4号

2008年8月25日発行

李龍欽理事長等、役員7人 日本で3泊4日ワークショップ 唐津 日韓トンネル調査斜坑工事現場等見学

平和統一財団諮問委員ら12人と同行
朝鮮通信使の遺跡、名護屋城も探訪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イ・ヨンフン（李龍欽）理事長ら役員7人が、去る8月9日から12日まで3泊4日間、日本の九州福岡でワークショップを行った。

一行は佐賀県唐津にある日韓海底トンネル調査斜坑を見学し、朝鮮通信使の足跡が残っている相島と佐賀県名護屋城博物館等、日韓関係の遺跡地を見学した。

今回のワークショップは平和統一財団（理事長クァク・チョンファン）の諮問委員および役員ら12人と共同でなされた。一行は去る8月9日午前、ソウルとプサンをそれぞれ出発、福岡空港で合流し全日程を共にした。

一行は到着初日、空港ですぐに福岡近郊の新宮町港に移動、船便で相島に行き朝鮮通信使一行を迎えていた当時の防波堤と客舎跡等の遺跡を見学した。

2日目の10日には九州国立博物館を見学し、11日には貸切バスで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を訪れ、常時展示中の日韓交流歴史展示会を観覧した。名護屋城は壬辰の乱のとき豊臣秀吉が朝鮮半島侵略のために作った城で、現在、城跡のみ残っており、名護屋城博物館はこの城跡の片隅に建っている。

続いて一行は唐津の日韓海底トンネル調査斜坑工事現場を訪問、藤橋所長から説明を受け、現在5百メートル余りまで掘削されているトンネル内部を見学した。

この日の夜には宿舎であるニューオータニホテル3階会議室で日韓トンネル研究会側の濱博士を招請、「青函トンネル建設の経験」という題で講演を聞いた。

今回の日本ワークショップの参加者は次のとおりである。

△イ・ヨンフン（李龍欽）理事長 △パク・チゴン（朴致権）事務総長 △パク・ソンス理事（釜山大、建築科教授） △チョン・ホニョン理事（釜山大、都市学科教授） △リュ・ジョンウ理事（釜慶大、建築科教授） △チョン・チャンフン理事（一信設計常務） △キム・チャウン監査<以上韓日トンネル研究会役員>

△キム・ヨンホ（株テヌン副会長） △クァク・ギョルホ（大韓土木学会会長、前環境部長官） △シン・ドンギョ（前輸出入銀行行長） △ヨ・ヨンス（IIFWP 室長、前鮮文大理事） △チョン・テイク（慶南大教授、前駐ロシア大使） △チュ・ジュンソク（前プサン港湾公社社長） △ホ・ムンド（前統一部長官） △ファン・ホギョン（ザ・フェイスショップ 코리아 副会長） △ティモシ・エルダー（平和統一財団事務総長） △クォン・ヒョクソ（平和統一財団常任顧問） △キム・ドンウク（平和統一財団局長）<以上平和統一財団諮問委員および役員/カナタ順>

ホ・ムンド前統一部長官 特別講演 「日韓トンネルは両国間の所得標準化の手段」 「国家戦略として韓国が主導しなければ」強調

ホ・ムンド前統一部長官は、去る8月11日、日本のワークショップ参加者たちを対象に行った「日韓関係2千年—過去から未来を見通す—」という題の特別講演で「韓国は未来志向型国家戦略に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主導する大胆なベッティン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は日韓間の所得標準化をもたらす決定的な手段」だと強調した。

ホ前長官は「今、世界は国家間のそれぞれの市場をまとめ巨大市場を作る FTA が生まれている。EU のように「東北アジア共同体」というものも、結局その核心国家は韓中日の3カ国だ。この3カ国がひとつの地域共同体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歴史的な発展段階の条件上、東北アジア共同体の前段階として、まず日韓の2国が先に経済共同体をなし、その後、中国が共にする手順がふさわしい。そのためには、日韓両国がまず FTA を締結しなければならないが、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は東アジア共同体に向かって、日韓 FTA 体系をもう少し現実化、高度化するうえで決定的な手段になりうる」と話した。

氏は「もし韓国が未来志向的に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主導していくならば、韓国は日本に対する歴史的な被害意識というか、一種の「歴史的恨み」を克服するだけでなく、慢性的な貿易不均衡は克服され、最終的には日韓海底トンネルによって日韓間の所得標準化に到達するだろう」と主張した。

ホ前長官は「日韓海底トンネルを建設すれば、日本が終着駅になり日本だけが得をするというような狭い被害意識的な考えから抜け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また、現段階での日韓間の経済格差をみて恐れることも無い。より未来志向的に国家戦略レベルで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に踏み出すべきだ」と強調した。

日本の団体「つばめ会」会員たちが案内 「現代版、朝鮮通信使が来た」歓迎

今回、日本のワークショップに参加した我々一行が、日本到着の初日である、去る8月9日午後、昔、朝鮮通信使が停泊していた相島を訪問したとき、福岡で活動中の日本の民間団体「つばめ会」の会長トミナガセイジ氏ら会員5人が出迎えてくれた。

「つばめ会」は相島が故郷である日本人たちが中心になって作った日韓親善交流のための民間団体。彼らは昔、朝鮮通信使が日本の内海に入る前に、自分たちの故郷である相島に立ち寄り滞留した事実を誇りに思い、当時の日韓間の交流を手本にして、民間レベルで日韓親善交流のために活動を行っている。

トミナガ会長は、我々一行が相島を訪問したことを「現代版朝鮮通信使が来たみたいだ」と言い、我々一行を「平成通信使」と呼んだりした。

トミナガ会長らは我々一行が相島に到着すると、まず昔、朝鮮通信使を乗せた船が停泊していた防波堤に連れて行き、当時の防波堤の築造にと関連する歴史的事実などを詳しく

紹介し、続いて朝鮮通信使が留まっていた客舎跡、井戸などを案内し親切に説明してくれた。

トミナガ会長らは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が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を推進しているという説明に拍手し喜んだ。

「技術的に問題ない。着工 7 年竣工」

藤橋所長明らかに

日本の九州佐賀県、唐津にある日韓海底トンネル調査斜坑工事現場の責任者である藤橋所長は、去る 8 月 11 日現場を訪れた今回のワークショップの参加者たちに「(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工事に)技術的な問題は無い。日韓間の政治的な合意がなされれば可能なこと」と話した。

氏はまた「もし、韓国と日本が合意さえすればトンネルは 7 年あれば竣工できると見ている」と話した。

国際シンポジウム、釜山発展研究院と共同主催することに

7 月 14 日第 2 回臨時理事会で決定

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は去る 7 月 14 日、社団法人事務所(釜山東区草染洞一信ビル)会議室で 2008 年第 2 回臨時理事会を開き、去る 5 月 14 日、西面ロッテホテルで開かれた小委員会で論議された案件を審議した。

この日臨時理事会に参加した役員は、ソ・イテク、イ・ヨンフン(李龍欽)共同代表、パク・チゴン(朴致権)事務総長、コ・カンソ(高冠瑞)副理事長、リュ・ジョンウ、チョン・ホニョン、チョン・グクサム、イ・ドンウク、キム・チャウン(監査)等 9 人で、イ・サンフン理事は委任状を提出し参席した。

この日の臨時理事会は会員確保対策として正会員と機関会員、特別会員を理事等の推挙と勧誘等で迎え入れることにし、年会費は一般会員(正会員)2 万ウォン、理事 10 万ウォンとし、特別会員は約定額(1 講座 100 万ウォン単位)と議決した。

また、「日韓トンネルフォーラム」は年間開催回数を決めず、事情によって必要時開催するが、担当理事として推薦されたチョン・ホニョン理事が具体的な推進計画を立てていくことに意見が集約した。

顧問および諮問委員の選定および推挙は共同代表に全権を与えることにし、専門委員会 は理事会傘下に政策委員会と技術委員会を置くことに決定した。また当初、来る 8 月に開催することになっていた国際セミナーは来る秋に延期するが、「日韓海底トンネル国際シンポジウム」というタイトルで釜山発展研究院と共同で主催することを議決した。

その他、ニュースレター発行部数を現 1000 部から更に増やし、言論社等にも配布することにした。

釜山市、日韓海底トンネル研究に本格突入 ホ・ナムシク市長、釜山発展研究院に T/F チーム構成指示 ソ・イテク、李龍欽共同代表、「非常に歓迎」

釜山市が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問題に対して積極的な姿勢を見せ始めた。

釜山発展研究院（釜発院）は「釜山市の指示により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問題を日本の福岡と韓国の東南圏（釜山・慶南）地域を結ぶ東北アジア複合交通網の構築レベルで研究することに決定した」と去る 6 月 29 日、明らかにした。

このため、釜山発展研究院はチェ・チグク都市創造本部選任研究委員を団長とし、キム・ヒョンギョン政策協力処長、クム・ソングン知識経済本部選任研究委員等、交通、物流、社会・文化、経済分野の専門家 8 人で「日韓海底トンネルタスクフォース（TF）チーム」を構成した。

釜山発展研究院の TF チームは来る 12 月までに 1 次報告書を提出し、国内外の専門家が参加する中、東北アジア物流中心都市としての役割と政策方向を盛りこんだ「国際物流交通都市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計画だ。

これに関連し、ホ・ナムシク市長は「国境の概念がなくなる超広域的国際状況に対処し、経済発展を図るために海底トンネルの効果等に関する研究に取りかかった」と話した。

これに対し、社団法人韓日トンネル研究会のソ・イテク、李龍欽共同代表は「これまで日韓海底トンネルの建設問題に対して消極的な姿勢をみせてきた釜山市が積極的な態度に変わったことは非常に喜ばしいことだ」と話した。

一方、釜山地域の有力日刊紙である釜山日報は 6 月 27 日付、1 面トップ記事にこの事実を大々的に掲載した。

賛否、熱い日韓トンネル妥当性研究 ネチズン(インターネットユーザー)たちの反対意見多い

最近、釜山市が釜山発展研究院を通して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の妥当性研究をすると発表し、これを言論社が大きく取り上げたことにより、インターネットのコメントを通して賛否世論がはっきりと分かれる等、大きな反響を見せている。

これまでに見られたネチズンたちの意見は、反対の声が絶対的に多いのが実情。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に反対するネチズンたちが、釜山市のホームページと daum アゴラ(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に載せた抗議の文と否定的なコメントは数百件に達している。

また、釜山市庁担当部署と釜山市の妥当性研究の事実を 1 面トップ記事に報道した釜山日報にも抗議の電話が多くかかってくると伝えられた。

コメント等を通して反対意見を載せたネチズンたちは大概「日韓海底トンネルが建設されれば釜山港は無用と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数多くの利点が日本にいつてしまう」、「売国奴の行列に入ろうとしている」、「世論調査がなかった」、「急に進行しすぎだ」等の主張を咲かせた。